

시론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얼마 전 TV에서 교양프로그램을 보다가 진행을 맡은 역사학자가 칭기즈칸을 '위대한 정복자'라고 칭하는 걸 듣고 소름이 끼쳤다. 수많은 민족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제국을 이룬 인물들은 많았다. 알렉산더(BC 356-BC 323), 칭기즈칸(1162-1227), 나폴레옹(1769-1821).... 술한 이름이 떠오른다. 그들의 정복에는 예외 없이 살육과 파괴가 동반됐다.

빅토리아 여왕(1819-1901)을 필두로 한 식민시대 통치자들도 끼워줘야 한다. 알렉산더, 칭기즈칸의 방식과는 달랐지만 아우른 영역을 파진다면 분명히 식민시대에 위대한 정복의 시대였다. 그들이 식민지에 남긴 파괴적인 폐해는 아직도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식민제국들이 행한 살육을 따져도 숫자와 잔혹성에 있어서 앞선 정복자들에게 뒤지지 않는 실적을 남겼다.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함께 거론되지 않을 뿐이다.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재위 기간 :1885-1909)의 기록을 찾아보시라. 살육의 잔혹성을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십분 양보해서 정복자들이 위대하다면, 그들의 위대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가치를 전파한

위대함과 잔혹함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헬렌 니콜이 인류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아닐 수도 있다. 페르시아 것은 페르시아 그대로 그리스 것은 그리스 그대로 남아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위대한'은 언제나 한쪽의 견해일 수밖에 없다. 당한 쪽에서 본다면 위대한 정복자가 아니라 잔혹한 침략자였다. 제국을 이루었던 것을 따져 위대하다고 평할 수 있다면 히틀러도 위대한 정복자의 반열에 들어야 한다. 살육의 잔치를 벌였지만, 히틀러도 짧게나마 제국을 일구었다.

위대하다는 말의 배면(背面)을 살펴야 한다. 그레아 공정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살육을 홀로코스트로 여긴다. 학살당한 6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선정적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5천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 모두가 군인은 아니었다. 집사들은 유대인보다 학살당한 숫자에서는 적었지만, 전체 집사 인구에서의 비율로 보면 훨씬 더 컸다. 한 민족이 당한 파멸적 상처로는 유대인을 능가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45만 명을 잃었지만, 남북전쟁(1861-1865) 4년 동안 62만 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45만 명은 미국인 300명당 1명 꼴이었고, 남북전쟁은 50명당 1명꼴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도 많았다. 산술적 비교를 뛰어넘는 충격치가 무려 6배에 달했다. 그런 미국인들에게 학살당한 인디언의 숫자는 홀로코스트를 초라하게 만든다. 미국은 정말 위대인가?

칭기즈칸(1162-1227)의 정복 전쟁은 인류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중국에서부터 시작

해 중앙아시아는 물론이고 동유럽까지 파괴했다. 전쟁 방식도 지독히 잔인했고, 여러 문명 공동체에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전쟁이었다. 몽골의 정복 전쟁 중에 4천만 명이 죽은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 수로 환산하면 3억 명 가까이 죽은 셈이다. 과연 칭기즈칸을 '위대한 정복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까?

'위대한'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인물이나 사건은 영역과 방식을 떠나서 인류 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 때 탄생한다. 하지만 그 심대한 영향은 반드시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위대한 과학자들로 불리는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같은 이들의 업적은 어떨까. 그들의 연구는 세계를 바꿔 놓았지만, 좋은 결과만을 남기는 것은 않았다. 위대함은 언제나 야누스다. 두 얼굴을 가졌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 '세계화'는 어떨까. 분명 위대한 사건이라 불림만하지만, 세계화도 가진 위대함의 크기에 못지않은 잔혹성을 가졌다. 세계화는 우두머리가 보이지 않는 위대한 정복자다. 지나는 곳마다 토착 문화를 학살하고 파괴한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결과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정복당한 뒤다.

전 세계적인 것을, 전국적인 것을, 큰 것을 찾는다. 위대한 것을 찾는 일이다. 그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인간은 미시적인 존재다. 미시적인 존재가 거시적인 것만을 따르며 거대한 것에 속하는 작은 분자가 될 뿐이다. 잊지 마시라. 위대한 것은 잔혹하다.

社說

막바지로 치닫는 민주당 경선 전남지역 민심 촉각

더불어민주당의 4·10총선 후보 경선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 바람이 거센다. 광주에 이어 전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뒷발인 전남은 10곳 지역구 중 이계호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한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제외한 9곳에서 경선이 본격화됐다.

목포, 고흥·보성·장흥·강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 3곳은 10-12일이며, 여수갑, 여수을,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은 11-13일이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일정은 15-16일이다. 공교롭게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빼고 8곳에서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 간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당초 전략공천됐다 철회된 권향업 전 청와대 비서관과 서동용 의원 간 대결도 주목된다.

앞서 광주 지역구 6곳에서는 광산을 민형배 의원을 제외한 현역이 줄줄이 무릎을 꿇는 이변이 연승했다.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무주공산인 서구을은 친명(친이재명)계 양부남 당 공동 법률위원장이 이겼으며 서구갑은 10-12일 경선

이 치러진다.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전남은 일정이 지연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하는 현역 우세 구도에서 광주 의원들이 속수무책 탈락했다. 정치권이 전남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민주당 공천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본선 행 티켓의 주인공이 속속 가려지고 있다. 광주·전남이 최대 지지기반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공천장은 당선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안정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국민의힘도 총력전 태세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광주 출마를 확정하는 등 공을 들이면서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전과 사뭇 다른 호남 민심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극한의 대치, 그리고 거대 양당의 내부 갈등 속 이탈 세력을 규합한 제3지대의 출현까지 다자 구도다. 결국 물갈이론과 맞물려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을 지켜 보는 이이다.

사업권·분양가 논란 중앙공원1지구 시민피로도 높다

광주시가 지난주(현안)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총사업비 산출액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한양과 특수목적법인(SPC) 빚고중앙공원개발 간 사업 주체만 다투다가 해법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는 "한양은 자료 공개 부실이나 토론회 본질과 관계없는 법적 지분을 변경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마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토론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그동안 소송 등에서 되풀이해온 공방만 이어졌다. 분양가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 후보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 시 타당성 용역을 맡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중앙공원1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33㎡(평당) 분양가로 2천425만원의 제시한 반면 한양 측은 1천900만원에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신속성과 공개, 투명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광주시가 과다 책정된 금액 정상화, 분양성

개선, 사업자 이익 축소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역시 생산적 논의 없이 갈등만 재차 부각됐다. 광주시는 "속임수 행정을 한다는 모욕적인 표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빚고와SPC와 한양이 사업권을 놓고 극심한 마찰을 보이는 가운데 광주시는 이날 중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겠다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임지적 장점과 넓은 공원 면적으로 특히 관심이 많다. 도시계획위 심의에 앞서 추가적인 검증이 주목받고 있다.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과 상식에 근거해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광주아파트 분양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지만 혼란스럽다. 시민들의 피로도 또한 깊어지고 있다.

자치칼럼



김 용 민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송원대학교 교수

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열광하는가?

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협력제도(조합, 광역협의회 등)들에 비해 자치권 보장이 향상된 제도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분야는 조공역 협력으로 광역경제·생활권 형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대응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 간 통합적 사무수행·중복·자원의 집중활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시너지효과도 창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갈등 조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동의하며, 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에 취지에 근거한다면 광역적 사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광역적 사무는 무엇인가?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재난, 소방, 치안, 교통, 쓰레기처리, 노인요양, 장례식장 등을 말한다 일반적이다. 즉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관련된 광역사무로 좁게 해석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부울경 특별연합이나 새로 준비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연합 설치의 당위성을 보면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적 접근과 차이가 있다. 즉 에너지, 인공지능 등 혁신벨트를 조성한다든지, 5대 미래산업을 공동으로 육성하거나 문화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4차산업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민의 생활권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지지 않고, 향후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일본의 광역연합인 간사이 광역연합 대부분은 기초지자체 상호 간의 광역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활성화되었다. 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인 특별구나 광역교통행정 기구제도도 마찬가지로 광역수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주민 중심의 광역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산업이 육성되면 경기도 부양되며 인구가 증가하고 출생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검증되지 않았다. 전국 출산율 0.72명, 전남 영광 출산율 1.80명, 서울 관악구 출산율 0.42명이 말해주는 바를 심사숙고 해야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권역에 대한 개념을 과감하게 넘어서야 한다. 충청권, 전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이라는 권역을 넘어서 광역 간 연합을 탈피하여 기초지자체 간 과감한 특별자치단체가 설치되고, 기관구성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역도시들은 다양한 권한을 시군에 내주어야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공의 핵심은 주민의 불편과 생활을 해소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

독자투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검찰 등을 사칭한 방식으로 범행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졌음에도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기승...주의만이 피해 예방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저금리 대출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

용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접근하고, 해당 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서 피해자들이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 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칫 한 번의 방심으로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기꾼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출처불명의 전화, 문자 등은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침묵은 詩

해진 옷 갈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가요  
30여 년 낡고 낡은, 딱 한 벌 나들이옷  
그런 옷 안고 갈 때는 휘파람을 불며가요

꼬질꼬질 솔거에도 미루이 숨었는지  
공복의약수마다 의연하던 품새였조  
페달에 휘감겨 도는 봄먼지가 구수해요

그대 옷 찻으로 갈 땀 자전거를 타고가요  
백사리 휘파람은 바람에게 리폼받고요  
반백을 함께 하고 나니의 길도 리폼해요  
(시조집 '눈물값', 묵언예원, 2023)

리폼



정경화

[시의 눈]

황시의철입니다. 번적이 잦은 날씨에 미처 봄옷 장만을 못한 채도 맞네요. 애내는 장롱을 살펴다 소맷귀 닮은 줄무늬 춘추복을 꺼냅니다. 참, 강의 때 입었다는 데아닌이군요. 그녀는 백화점에 갈까 하다 농지기를 그냥 종이백에 담지요. 짐 앞 수선 가게로 갑니다. 주인이 마침저녁쯤 오라네요. 서둘러산책을 끝내지요. 그나마가게를 열자 옷걸이에 걸린 한철한 양복이 눈에 띄어옵니다. 허, 다림질까지도... 감쪽 새 옷인가 했네요. 단추구멍에 '꼬질꼬질' 숨은 솔거도 매끈하듯 들었군요. 이전 그이가 사람들과 약속할 땐 더 의연해 지겠네요. '감사합니다!' 서둘러나오는 발은 자전거 페달이듯 신바람을 뿜어냅니다. 그녀는 얼른 입어보라 채근합니다. 순간 내 석류빛 웃음이 높은 불을 다 차지합니다. 베란다 스키는 바람에 리폼 받은 휘파람곡 '어찌다 생각이 나겠지...' 갈라진 입술로 난 서툰 휘파람곡 조소를 맞춰봅니다. 허, 아내와 나는 이런 일에 이골이 났더랬지요. 아이 셋을 졸업시킬 때까지, 아니 아니 지금도요. 정경화 시인은 대구에서 나, 2007년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 2007년 동아일보와 농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시조집 '풀잎'(2007), '편백나무집'(2020) 등이 있습니다. 그는 덧없이 흐른 세월에도 관수하듯 잔잔한 사유를 뿌려서 정서의 생명력을 뽐내시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편집지원부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기실현요건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